

1~5화 2022년 10월 24일 수행

회차	내용	원작쪽수
프롤로그	던전이라는 세계가 발견되고, 일상이 된 세계. 던전의 마물을 사냥하는 각성자들, '헌터'들은 던전에 들어간다. 저급 던전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는 E급 헌터 성진우. '인류 최악의 병기'인 그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던전에 들어간다. 그러나 D급 던전 속에 숨겨진 최악의 난이도 '이중던전'에 들어간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순간부터 그의 눈에만 '퀘스트창'이 보이기 시작한다. 퀘스트를 수행할 수록 강해지는 성진우, 최악체였던 그가 최강의 S급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0화 1~7쪽, 1화 1~3쪽
1화	거신병과 같은 몬스터 2마리에게 포위당한 E급 헌터는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서울의 '최악병기'인 헌터, 성진우는 헌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평범한 '시민'이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만했고, 고죽출신이기에 헌터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다. 성진우의 약함은 같은 헌터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오죽하면 그가 가는 던전은 안전함이 보장된다라는 말까지 돌고있다. 이미 힐러가 필요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낮은 E급 던전에서도 병원에서 입원까지 했을 정도로 약한 성진우였지만, 오늘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던전에 나왔다. 그런 그를 걱정하는건 이번 던전 공략에 함께 하는 '주희'뿐이었다. 어느덧 입던 시간에 되고, 송치열을 중심으로 한 파티로 던전을 공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헌터무리 속에서 성진우는 오늘도 던전에 들어간다.	1화 4~9쪽,
2화	헌터협회의 직원은 오늘도 성진우를 걱정했다. 매번 다쳐서 오는 성진우였지만 D급의 던전이기엔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리를 비웠다. D급 던전에 들어간 성진우는 '주희'로부터 걱정을 받을 만큼 벌써 상처투성이였다. 다행히 다른 헌터들의 활약으로 레이드는 순조롭게 진행중이었다. C급 몬스터에게 나오는 마정석만 해도 천만원이 넘어 여동생의 대학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지만, E급 헌터인 성진우에게는 어림없는 소리였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남에게 알려줄 수 없는 개인사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절실했다. 레이드가 끝나갈 무렵, 이중 던전이 발견된다. 보스를 잡으면 던전이 닫혀야되는 던전이 아직 닫히지 않은건, 이중 던전 속 보스가 있다는 뜻이었다. 원래라면 협회에 보고해야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혹시나 수익이 줄어들까 투표를 통해 이중던전에 들어가기로 한다. 8 대 8, 동물인 투표에 성진우의 선택만이 남았고, 가족을 위한 돈이 절실했던 그는 이중던전에 들어가기로 한다.	1화 9~16쪽 2화 1~3쪽
3화	이중던전으로 들어간지 40분째, 송치열을 선두로 한 파티는 20분 정도 남겨두고 보스를 향해 가고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성진우는 이중 던전에 들어온 것에 사과하지만 '주희'에게 설교 듣는다. 성진우에게 호감이 있는 주희는	2화 3~17쪽, 3화 1~6쪽

	<p>성진우에게 데이트를 권유하지만, 그 순간 보스방의 문에 도착한다.</p> <p>이례적인 보스의 문, 헌터들은 잠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파티장인 송치열이 용기있게 나서자 다른 헌터들도 그를 따라 들어간다.</p> <p>음산한 석상들이 나열되어있는 오래된 방, 그곳에서 이 방의 규칙이 룬 문자로 쓰여있는 석판을 발견한다.</p> <p>'주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성진우에게 석상이 자신을 쳐다봤다고 말하지만, 성진우는 기분탓이라며 넘겨듣는다.</p> <p>송치열이 석판을 읽자 달히는 문, 한 남자는 이곳에 질려 나가기로 한다. 하지만, 갑작스레 움직인 한 거대한 석상이 남자를 날려 죽여버리고.</p> <p>한순간에 갇힌 헌터들, 그리고 가장 커다란 석상이 성진우를 바라본다.</p>	
4화	<p>성진우의 죽음의 순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여러 고난을 겪으며 마정석을 얻기는 했지만, 가족을 위해 사용해왔기에 마땅한 장비없이 지금까지 맨몸으로 헌터생활을 이어왔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무시의 시선을 견디며 던전에서 살아남는 '눈치'를 배웠다.</p> <p>갑작스럽게 석상에서 발사된 레이저에게서 '주희'그리고 성진우를 포함한 여러 헌터를 살려준 것은 성진우의 '눈치'였다. 사상자가 생겼지만 고개를 숙인 헌터들은 성진우의 말로 살았고, 사태파악을 위한 송치열의 대기 신호에 일단은 대기한다.</p> <p>이미 겁에 질려 정신을 못차리는 '주희'를 포함해 헌터들은 기다리지만, 이미 파티는 혼란스러웠고 송치열의 왼팔은 잘려나간 상태였다. 그런 그의 지혈을 도와주던 성진우는 송치열에게서 이 이중던전이 A급을 뛰어넘는, S급의 던전이라는 말을 듣게된다. 그리고 전멸하는 것도 곧 시간문제임을 깨닫는데...</p>	3화 7~11쪽
5화	<p>다른 차원과의 연결고리인 게이트가 처음 나타난 10년전, 게이트의 등장이후 세상에는 상식 밖에 일들이 발생했다. 그 중 하나가 각성자였고, 성진우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 각성은 미미했다.</p> <p>각성자들이 던전에 들어가 마물을 처리하는 것을 헌터라 불렀다. 그리고 게이트의 너머에는 간혹, 끔찍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p> <p>송치열의 상처를 걱정하는 성진우. 파티원은 죽어가고, 살아남은 헌터들도 패닉이다. 특히 힐러인 주희의 패닉으로 상처마져 치료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성진우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도중, 한 헌터가 자신의 속도능력을 믿고 밖을 나가기 위해 나가려한다. 엄청난 속도를 내지만, 결국 석상의 공격에 온몸이 날아간다. 그리고 그걸 본 헌터들은 더 좌절하게 되는데. 하지만 성진우는 이번 석상의 움직임을 분석한다.</p> <p>그리고 떠오른 석판의 내용, 성진우는 자신을 지금까지 살려준 '눈치'로 이번 던전의 첫번째 공략을 깨닫는다.</p>	3화 11 ~ 16쪽

6~13화 2022년 10월 31일 진행

6화	<p>던전의 첫번째 공략을 파악한 성진우의 말에 따라 사람들이 모두 가장 큰 석상을 향해 절하듯 몸을 숙이자, 석상의 공격이 멈추고 석상의 표정이 바뀐다.</p> <p>석상이 일어서고, 두번째 규칙인 '신께 찬양하라'의 공략을 위해 성가대 출신의 헌터가 일어난 석상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지만 찬송가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찬송가를 부르던 헌터는 석상의 발에 깔려 죽는다.</p>	4화 1~12쪽.
	<p>석상의 표정이 섬뜩하게 웃는 얼굴로 바뀜.</p> <p>패닉에 빠진 주희의 자세를 성진우가 바꿈.</p>	
7화	<p>헌터를 밟아죽인 가장 큰 석상이 계속 움직이고 다른 헌터들은 도망친다. 박씨가 가장먼저 벽끝의 다른 석상에 도달하지만 도착한 석상이 박씨를 공격해 죽고만다. 도망치던 성진우는 악기가 있는 석상에 도달할 것을 다른 헌터들에게 말하고, 다른 헌터들이 악기를 든 석상에 도착하자 악기가 음악을 연주한다. 주희를 이끌던 성진우도 악기를 든 석상에 도착하지만 두명이 같이있어 연주를 하지 않고, 성진우는 주희를 두고 다른 석상으로 뛰어간다. 가까스로 공격을 피하지만, 가장 큰 석상의 공격이 남았다. 기어서 석상에 겨우 도착한 성진우를 마지막으로 공략에 성공한다. 하지만 아까의 공격으로 성진우의 오른발이 잘려나간 상태였다.</p>	4화 12~17쪽. 5화 1~10쪽.
	<p>박씨의 가정사를 한컷에 디테일하게 넣음.</p> <p>웹툰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줄다리기 장면으로 묘사했음.</p>	
8화	<p>두번째 공략 이후, 큰 석상이 제단을 만들어낸다. 파티를 거의 전멸시켰다는 이유로 송씨가 제물이 되 제단에 오르자 제단에 하나의 불빛이 타오른다.</p> <p>성진우가 부축을 받으며 제단에 오르자 사람인원 수만큼 제단에 불빛이 타오른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던전의 몬스터들이 현실세계로 나가기에 던전을 공략하고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제단위로 오르고 제단을 둘러싼 파란 불빛들이 타오른다. 그리고 던전을 나가는 문이 열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란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석상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p>	5화 10~16쪽. 6화 1~8쪽.
	<p>송치열이 제물이 되는 과정 단순화(?)</p> <p>성진우의 생각을 대사나 독백보다는 시각적으로 표현</p>	
9화	<p>두려움을 참지못한 한명이 제단을 벗어나 문밖으로 도망친다. 한명이 제단에서 뛰어나가자 조금 문이 닫히고 그 사람이 성공하자 다른 사람도 그녀를 따라 뛰어나간다. 성진우는 석상은 시선을 때면 움직이는 원리로 던전의 공략은 타이머가 꺼질 때 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성진우의 말에 확신이 없던 김씨마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향해 달려가고 만다.</p>	6화 8~15쪽. 7화 1 ~ 4쪽.
	<p>김씨와 성진우의 대화 증가. 성진우의 독백 추가.</p>	
10화	<p>김씨마저 도망가고, 주희와 성진우, 송씨만이 남은 상태에서 송씨가 혼자 남을것을 제안하지만 발이 잘려나간 성진우가 혼자 남겠다 말한다.</p>	7화 4~15쪽.

	<p>그런 성진우를 주희가 말리지만 송씨는 주희를 기절시키고, 성진우의 말을 따라 주희를 데리고 나간다. 혼자 남은 성진우는 떨어진 검을 잡고 싸워보려 하지만 일격에 내동댕이 쳐진다. 살고싶다는 마음과 함께 성진우를 향해 석상의 마지막 공격이 내리쳐지는 순간, 시간이 멈추고 성진우에게 '퀘스트 완료'라는 말과 함께 플레이어가 될 것을 제안하는 '창'이 하나 나타나고, 다른 방법이 없는 성진우는 그것을 승낙한다.</p>	
	<p>원가에서는 후방, 웹툰에서는 정면으로 성진우를 공격. 생존을 향한 갈망이 디테일하게 묘사. 주희와의 주마등 장면을 '학생'부분의 장면으로 대체.</p>	
11화	<p>성진우가 눈을 뜬곳은 병원이었다. 헌터협회의 감시과에서 성진우에게 지난일에 대한 질문과 '각성 후 각성'여부를 조사하지만 별 소득없이 돌아간다. 이후의 사정을 들은 성진우는 자신에게 '창'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여동생의 병문안 이후 '창'에서는 새로운 퀘스트를 주지만, 성진우는 일단 그것을 무시하고 잔다. 하지만 퀘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패널티'로서 알수없는 사막으로 전이된 성진우는 괴물을 만나고 '창'으로 부터 4시간 동안 생존하라는 패널티에 대한 퀘스트를 받는다.</p>	<p>7화 15~17쪽. 8화 1~14쪽. 9화 1~17쪽. 10화 1~5쪽.</p>
	<p>전체적인 스토리 압축 및 생략. 여동생의 눈물 삭제 및 여동생과의 대화 생략. 일일퀘스트 일부 수행 삭제.</p>	
12화	<p>가까스로 패널티 던전에서 탈출한 성진우는 이후 '창'이 내주는 퀘스트를 성실히 수행한다. 그로인해 마치 '게임'처럼 일정 능력들을 보상을 받아가며 몇일을 보낸다. 보상중 한번으로 받았던 '랜덤박스'를 사용하기위해 지하철 역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랜덤박스에서 받은 '열쇠'를 사용하자 '인스턴스 던전'에 들어가게된다. 지금껏 혼자 던전을 돌아본 적이 없었던 성진우는 위기감을 느낀다.</p>	<p>10화 5~19쪽. 11화 1~16쪽. 12화 1~16쪽. 13화 1~ 10쪽.</p>
	<p>전체적인 스토리 압축 및 생략. 패널티 퀘스트 이후 성진우의 진단 장면 삭제. 일일퀘스트 달성 과정 및 퀘스트 보상 설명 간략화. '재각성 조사과정' 및 '병원에서의 회복및 성장' 장면삭제. '김씨 아저씨가 쓰던 검 확인' 장면 삭제. 원작 12화, 13화 '간호사 최유라'의 포장마차 및 연락처 교환장면 삭제. 핸드폰 발급 신청 장면 삭제. '김씨 아저씨가 쓰던 검 착용' 장면 변환. (1)</p>	
13화	<p>'인스턴스 던전'에 들어온 성진우는 시작부터 '강철 이빨 라이칸' 한마리를 만난다. 하지만 퀘스트를 통해 성장한 자신의 몸은 라이칸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기가 없어 처치하지 못하고, '인벤토리'에서 이중던전에서 주웠던 무기를 꺼내 라이칸을 처치한다. 이후에 나타난 라이칸들도 무기를 사용해 처치하자 남은 라이칸은 성진우에게서 도망간다.</p>	<p>13화 10~16쪽. 14화 1~7쪽.</p>
	<p>'김씨 아저씨가 쓰던 검 착용' 장면 변환. (2) 라이칸의 처치를 주먹에서 검으로 변경.</p>	

14화 ~ 50화 11월 07일 이후 진행

14화	라이칸을 잡은 성진우는 레벨이 오름에 따라 자신의 '스탯'이 오를 것을 확인한다. 그외에도 자신에게 상태창내에 '상점'이 있음을 알게된다. 정확하게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들어온 E급 인스턴스 던전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번에는 아까보다도 훨씬많은 라이칸이 다가오고, 이미 죽음 직전까지 갔다온 성진우는 다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14화 8~14쪽
	성진우의 동기 강화. 생존본능, 라이칸과의 싸움 등 극적 연출 강화.	
15화	다가오는 라이칸을 모두 처치한 이후, 포기하지 않고 던전을 이어가는 성진우. 레벨이 오름에 따라 자신에게 어려운 몬스터들의 메커니즘을 파악한다. 어느정도 성장한 이후, 던전의 마지막을 향해 내려가지만 보스의 단 한 일격에 검이 부러지고 만다.	14화 14~17쪽, 15화 1~8쪽.
	성진우의 위기 및 성장 강조. 여유로운 모습x 진지한 모습o	
16화	인스턴스 던전의 끝, '늑의 지배자 푸른 독니 카사카'를 만난 성진우는 뱀의 단단한 피부에 고전한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힘을 위한 갈망에 성진우는 어떻게든 더 성장하고자 한다. 지금껏 무시당해온 삶을 되돌아보며 더 강함을 추구한 성진우는 결국 카사카를 처치하는데 성공한다.	15화 8~11쪽,
	카사카 사냥 장면 확대 및 강조. 과거 회상 및 힘을 갈망하는 등의 극적 연출 강화.	
17화	던전을 나온 성진우는 군인의 안내를 받는다. 그리고 인근에서 나타난 게이트를 뚫고 나온 보스 골렘 한마리를 하급 헌터 여럿이 상대하는 걸 보게된다. 그곳에 주희가 있는 것을 본 성진우, 아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걸 눈치챈다. 자신도 트라우마를 극복해야하는 걸 아는 성진우는, 고전하고 있는 보스 골렘 퇴치를 아무도 모르게 돕고는 그 자리를 벗어난다. 하지만 주희는 성진우의 방문을 눈치 채는데.	15화 11~16쪽, 16화 1~11쪽
	주희의 등장 추가. 트라우마 극복 묘사 추가. 헌터의 위상 장면 삭제.	
18화	성진우의 몸은 짧은사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이전과는 다른 성장에 더 높은 등급의 일을 할까도 고민하지만,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을 우선은 피하기로 한다. 우선은 밀린 집세 등의 경제적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한 성진우는 C급 던전의 E급 헌터 들러리로서 한 파티에 참석한다.	16화 1~17쪽, 17화 1~17쪽, 18화 1~6쪽.
	간호사 최유라(?) 장면 추가 - 늦은 추가	

	인스턴스 던전 및 골렘 퇴치 복귀 후 독백 삭제. 던전 참여 간략화. 성진우 무시 장면 추가.	
19화	던전 입장 전부터 성진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받는다. 던전에 입장한 파티는 갑작스러운 개미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성진우의 능력으로 재빠르게 적을 파악하고 몬스터들의 공격을 막는다. 하지만 파티원들에게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진다. 성진우는 자신보다 어리지만 살갑게 대해주는 유진호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한다.	18화 7~16쪽, 19화 1~9쪽.
	파티원들의 악한면 강조.	
20화	계속해서 성진우는 자신의 강함을 숨기고 파티원들과 던전을 나아간다. 그리고 보스방에 도달하는데, 그곳에서 마정석보다는 마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값이 나가는 마나석을 많이 발견한다. 하지만 파티원들은 이것을 나를 도구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유진호와 성진우를 보스방 남긴다. 하지만 파티원들은 그 둘을 남기고 보스방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진우는 그들이 '도마뱀'임을 확신한다.	19화 9~16쪽, 20화 1~6쪽.
	파티장 황동석의 독백 추가. 스토리 순서 일부 변경(도마뱀 설명, 보스방 문 폭파, 파티원들의 대화 등)	
21화	'도마뱀'은 같이 던전에 들어가 악한 자들을 꼬리자르기 하듯 버린다는 뜻을 의미한다. 던전 보스방에 갇힌 유진호와 성진우, 유진호는 절망하지만 성진우는 두렵지 않았다. 한편 그들을 버린 파티원들은 자신들이 버린 두 사람이 절대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돈을 챙길까 고민중이었다. 성진우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의 성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C급 보스에게 달려들고, 유진호는 그 모습에 감탄과 동시에 경악한다.	20화 6~17쪽, 21화 1~4쪽.
	성진우의 과거 회상 및 자신감 강조. 둘을 버린 파티원들의 악랄함 강조. 보스와의 전투 중 성진우의 독백 축소. - 그림으로 강조	
22화	거미 보스와의 전투가 시작되고, 성진우의 E급 헌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유진호는 그를 살인자같은 '부정등록자'로 의심한다. 처음잡는 C급 보스에 성진우는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사용해보지만 부족하다. 그렇기에 이전에 잡은 '카사카 무기'의 특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약점을 노려 잡기로한다. 피로도가 쌓이는 와중, 스킬과 '상태회복'으로 겨우 보스를 잡은 성진우와 성진우에게 겁을 먹은 유진호 앞에 자신들을 버린 파티원들이 다시 나타난다.	21화 4~18쪽, 22화 1~4쪽.
	보스와의 전투 중 성진우의 독백 및 설명 축소. - 그림으로 강조 상점 이용 가능 삭제. '상태회복' 기능 사용 연출 추가. - 극적 승리 강조	
23화	거미의 죽음을 확인한 파티원들은 성진우가 보스를 잡았다 생각하지 않고, 유진호를 포섭하려든다. 파티장 황동석은 성진우를 죽이지 않으면 유진호도 죽일 것을 경고한다.	22화 4~17쪽

	<p>갑작스러운 긴급 퀘스트와 공격이 동시에 발생한 성진우는 벽에 박히지만, 약해서 당해왔던 수모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지금껏 당해온 많은 악행에서 악육강식을 깨닫고, 긴급 퀘스트이자 복수로서 파티원들을 죽이기로 한다.</p> <p>성진우의 과거회상 및 독백 추가 성진우의 현실파악 강조 성진우의 강함에 대한 집착 시작.</p>	
24화	<p>성진우는 약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강함에 집착해야만 하는 이유를 떠올린다. 7명의 헌터들을 E급이라고 믿을수 없는 성진우의 움직임에 순식간에 살해당한다. 파티장이었던 황동석은 성진우와의 차이를 알게되고 목숨을 구걸하지만, 성진우는 망설임없이 그를 죽인다. 그리고 묵묵히 유진호와 던전을 나가기로 한다. 그리고 미국, 강함이 느껴지는 황동석의 동생이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일어난다.</p> <p>황동석의 동생 장면 추가 - 미래 내용 암시 스탯 및 보상 획득 과정 축소. 성진우의 독백 삭제. 목뼈 부러짐에서 참수로 변경 - 성진우의 잔혹성 강화</p>	23화 1~14쪽
25화	<p>지난번 던전의 일이 헌터 협회에 알려지고, 사망한 황동석이 황동수의 형인점과 성진우가 연관된 점을 헌터 협회가 주시한다. 퀘스트에서의 다양한 효과들을 얻어낸 성진우는 자신과 함께 살아돌아온 유진호를 만난다. 대기업 유진건설의 후계자인 유진호는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레이드 공대장이 되야한다. 그렇기에 그 자격인 '레이드 20번 클리어'를 위해 성진우를 회유한다. 성진우는 이를 거절하지만, 유진호는 성진우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데.</p> <p>던전 클리어 후 유진호와 성진우의 이야기 생략. 카페에서 학생들과의 불화 생략. '효과'획득에 관한 성진우의 반응 약소 - 원작과 성진우의 성격 차이 강조 헌터 협회 보고 장면 추가.</p>	23화 14~18쪽, 24화 1~16쪽. 25화 1~22쪽, 26화 1~9쪽.
26화	<p>유진호는 300억 건물의 명의를 성진우에게 제시하고, 성진우는 레이드를 둘이서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이에 유진호는 성진우의 실력을 믿고 동의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황동수는 형의 복수를 위해 2개월 뒤 한국에 돌아올 계획을 세운다. 일일 퀘스트를 2배로 완료한 성진우는 S급 인스턴스 던전의 입장권을 얻는다. 앞으로 유진호와의 레이드들을 위해 성진우는 더욱 성장하고자 S급 인스턴스 던전에 들어간다.</p> <p>혼자 운동을 동생과의 운동으로 변경. 황동수 장면 추가. 일일 퀘스트 및 S급 던전 입장 과정 축약</p>	26화 9~13쪽, 27화 1~16쪽, 28화 1~10쪽.
27화	<p>제주도에 한번 열린 S급 던전은 지금까지도 제주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 S급의 수문장인 케로베로스와 마주한 성진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시스템을 동원해 겨우 케로베로스를 쓰러트린다. 수문장의</p>	28화 10~17쪽, 29화 1~11쪽.

	<p>실력과 자신의 실력을 확인한 성진우는 일단 S급 던전에서 물러가기로 한다.</p> <p>어딘지 모를 카페, 초체한 한 남자가 헌터 협회의 감시과 사람을 만난다. 남자는 감시과 사람에게 어떤 헌터를 죽일 것을 의뢰하는데.</p>	32화 4~5쪽.
	<p>성진우의 반응 변화 - 원작과는 다른 냉철한 캐릭터로 변화</p> <p>S급 던전 설명 간략화.</p> <p>남자의 살해 의뢰 장면 추가. - 32화의 장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예고</p> <p>케로베로스 아이템 착용 장면 삭제.</p>	
28화	<p>S급의 스승이었던 송치열은 지난 던전에서 팔을 한쪽 잃었지만, 여전히 헌터생활은 하고 있다. 헌터협회의 오랜만에 성진우와 지난 사건의 생존자들을 다시 만난다. 성진우와 주희도 그곳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p> <p>하지만 이번 레이드는 '대체 복역자' 즉, 범죄자들과 함께 레이드를 해야한다.</p> <p>C급 헌터인 범죄자들을 인솔하기 위해 감시과의 B급 헌터인 강태식도 함께하지만 불안한 성진우는 주희에게 오지 말 것을 권유한다.</p> <p>하지만 주희는 성진우를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p>	29화 12~16쪽, 30화 1~13쪽, 31화 1~3쪽.
	<p>송치열의 제자 대련 장면 추가.</p> <p>송치열과 성진우의 만남 장면 및 이유 변화.</p> <p>지난 던전 생존자들간의 대화 추가.</p> <p>감시과 캐릭터의 행동 축약 - 주희로의 링크 삭제?</p>	
29화	<p>던전에서 마주한 것은 고블린들이었다. 폭력적이지만 확실하게 몬스터를 잡는 범죄자들과 다른 헌터들 사이에서 E급인 성진우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에 송치열은 놀랐다. 그러던 중 3갈래 길이 나오고, 3무리로 나뉜다.</p> <p>성진우는 송치열과 주희와 함께하는데, 범죄자들을 인솔하는 강태식에게서 불길함을 느낀다. 한편 범죄자들과 길을 함께한 강태식은 그들을 죽일듯한 말을 전한다. 성진우와 갈라진 김씨는 성진우에게 사과할 것을 결심하면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마주한다.</p>	31화 3~10쪽
	<p>강태식과 범죄자 상황 장면 추가. - 강태식의 잔인함 표현</p> <p>던전 내 상황 분량 증가.</p> <p>김씨의 목격 장면 추가.</p>	
30화	<p>강태진이 범죄자를 죽이는 것을 목격한 김씨. 이후 던전 어디선가의 비명을 듣고 성진우와 주희, 송치열이 뛰어오지만 갑작스럽게 강태식이 기습을 한다.</p> <p>그곳에서 쓰러진 김씨를 발견하고 주희가 치료해보려하지만, 김씨는 성진우에게 지난 날의 일을 사과하고 사망한다. 강태식의 행동에 송치열은 E급인 성진우대신 자신이 나설 것을 이야기한다.</p>	31화 1~16쪽 32화 1~?쪽
	<p>김씨의 강태식 살해 장면 목격 추가</p> <p>강태식의 기습 장면 변경</p> <p>김씨의 사과 및 사망 장면 추가 - 성진우의 분노 이유.</p> <p>송치열과 강태식 대립의 추가. - 송치열 캐릭터의 비중 증가.</p> <p>송치열의 성진우 분석 장면 변경.</p>	

31화	송치열은 강태식과 검으로 승부하지만, 본래 마법사인 송치열이 검과 마법을 써도 B급 인 강태식에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 강태식이 송치열을 죽이기 직전 성진우가 나서 이를 막는다. 강태식은 성진우가 재각성자임을 깨닫는다. 그렇게 강태식과 성진우가 싸우려한다.	32화 1~10쪽
	송치열과 강태식의 대결 장면 추가 - 강태식의 강함을 보여주려는 의도? 대화 비중 축약, 전투 장면 증가 - 액션신을 많이 넣을 의도	
32화	성진우가 이번 사건의 이유를 묻자 강태식은 범죄자 중 범죄를 일으킨 자의 피해자 가족의 의뢰라 설명해준다. 이후 거짓화유의 강태식은 성진우를 공격한다. 비슷하게 싸우는 듯 하나, 경험의 차이로 조금은 밀리는 성진우에게 다시 한번 '긴급 퀘스트'가 내려진다.	32화 4~13쪽
	원작 내의 대화 및 전투 순서를 다양한 화에 걸쳐 변경. 액션신 비중 증가. 퀘스트의 내용 및 성진우의 반응 변화 - 성진우의 냉철함 강조 강태식의 광기 강조.	
33화	스킬 '은신'을 사용하며 성진우를 압박하는 강태식, 하지만 성진우는 지금껏 시스템이 내려준 효과들을 사용한다. 이 모습에 강태식 뿐만 아니라 함께있는 주희와 송치열도 놀라게 된다. 강태식은 더 강하게 성진우를 압박하려 하지만, 단 일격에 의해 성진우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32화 7~15쪽 33화 1~6쪽.
	전투 전개방식 및 대사 순서 변경. - 액션신 강화. 성진우의 독백 및 성격 변화 강조. - 성진우의 냉철함 강조. 그림으로 강태식의 광기 강조.	
34화	강태식을 죽인 성진우, 죽어가는 강태식은 성진우가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라 말하고 죽는다. 성진우는 자신의 감정이 점점 차가워지고있음을 깨닫는다. 강태식이 의뢰를 받은 범죄자가 죽은 척을 한 것을 깨닫고, 혼자 보스방에 보내 처참히 죽인다.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해 헌터 협회에서 찾아와 묻지만 송치열은 이번 사건에서 강태식을 죽인 것이 자신이라 밝힌다. 그리고 헌터 협회의 사람은 성진우에게 황동석의 동생, S급 헌터 황동수가 성진우를 찾아올 것이라 경고한다. 그리고 주희는 성진우에게 잠시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	33화 6~13쪽, 34화 1~12쪽, 35화 1~10쪽
	성진우의 성격 변화 극대화 고블린 보스 사냥 장면 삭제 은신 룬 사용 및 은신 사용장면 삭제 황동수 언급 추가	
35화	주희는 성진우와 걸으며 자신이 헌터와 맞지 않으며 이제 은퇴할 것을 밝힌다. 성진우는 웃으며 주희를 보내주며, 자신을 찾아올 황동수에 대해 대비할 것을 결심한다. 이후 유진호와의 약속대로 C급 던전을 공략하기로 한다. 들러리 8명 을 모집하여 C급 던전 조건인 10명 을 채워 간다. 하지만 C급 던전 입찰에 많은 금액을 쓴 바람에 백호길드에서 둘에 대한 정보를 모은다.	35화 11~12쪽 36화 1~12쪽 37화 1~10쪽

	<p>원작에서 활동수가 처음 등장. 새로운 폰 받는 장면 및 최유라 삭제 주희의 독백 삭제 - 독백 없는 대화로 변경 백호 길드장면 추가 - 앞으로의 일 암시.</p>	
36화	<p>백호길드는 성진우를 재각성자라 생각하고 직접 스카우트 하기위해 찾아간다. 성진우는 유진호와 던전을 돌며 지난날에 얻은 새로운 스킬들을 사용하고 만족했다. 던전을 클리어 하고 나오는 길, 기다리고있던 백호 길드의 사람이 성진우와 만나 이야기한다. 하지만 성진우는 유진호에게 받아야 할 것을 생각하며, 제안을 들어보는데.</p>	<p>37화 10~13쪽 38화 1~12쪽 39화 1~11쪽 40화 1~12쪽 41화 1~9쪽</p>
	<p>원작 38화에 백호길드가 처음 등장 - 스토리의 순서를 바꿈. 백호 길드가 성진우를 찾는 과정 생략 및 단순화 백화점 인던 장면 삭제</p>	
37화	<p>백호길드의 안상민이 성진우를 찾아왔지만, 성진우는 600억 정도를 요구한다. 이에 일단은 협상이 결렬되지만, 자신의 정체를 알게된 성진우는 불쾌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안상민에게 자신의 정체를 주위에 알리지 말것을 경고한다. 안상민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일단은 성진우의 정체를 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안상민에게 남은 던전의 입찰권 마저 이득을 남기면서 판매, 시간을 비운 성진우는 전직을 위한 던전에 들어간다.</p>	<p>41화 9~11쪽 42화 1~12쪽 43화 1~13쪽 44화 1~13쪽 45화 1~13쪽</p>
	<p>동생 학부모 상담 관련 대화 삭제 백호길드 현기철 만남 삭제 전직퀘스트 조우 장면 삭제 및 축소</p>	
38화	<p>성진우는 전직을 위한 던전의 몬스터들은 이전의 기사형 몬스터들을 간신히 해치며 나아간다. 그들을 잡아 어느정도 장비를 맞춰간다. 던전을 깨며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덤벼드는 기사형 몬스터들은 지난날의 경험을 반영하는 듯 했다. 그리고 보스방의 문을 열었을 때 성진우는 이중 던전때 느꼈던 싸늘한 기운을 느낀다.</p>	<p>46화 1~16쪽 47화 1~14쪽 48화 1~2쪽</p>
	<p>전투 중의 성진우 독백 간략화 - 액션씬 강조. 전투 장면 축소.</p>	
39화	<p>보스방에서 만난 붉은 갑옷의 이그리트. 성진우는 지금껏 올려온 레벨과 능력을 사용해 이그리트와 맞싸운다. 하지만 강한 방어에 검은 통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싸우기로 한다. 기사도를 발휘하는 이그리트도 주먹으로 싸우지만 성진우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 위기가 찾아온다.</p>	<p>48화 2~7쪽</p>

	원작 반영	
40화	자신을 참수하려는 방심한 이그리트에게 공격을 하는 성진우. 갑옷의 빈틈에 단검을 여러번 찔러 넣는다. 이그리트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고, 지금껏 받아온 장비보다 훨씬 좋은 장비를 받지만, 아직 던전이 끝나지 않았다.	48화 7~12쪽 49화 1~4쪽
	원작 반영	
41화	이그리트를 잡고 시스템은 전직 퀘스트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여러 차원문을 통해 이그리트 이전에 잡아온 기사들과 마법사들이 넘어온다. 은신으로 시간을 잠시 벌여보려했지만, 마법사의 스킬로 은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끝이 안보이는 전투를 계속한다. 이그리트 사냥 보상으로 얻은 귀환석을 사용해볼까 하지만, 이제까지 약하게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이 말을 걸어오는데.	49화 4~12쪽
	독백 대사 변경. 과거의 자신과의 조우 추가 - 힘에 대한 갈망 극대화	
42화	처치하는 속도보다 밀려오는 기사의 수가 많은 상황, 성진우의 능력도 한계를 보인다. 과거의 자신은 계속해서 성진우에게 말을 건다. 아직까지 약한 자신을 되돌아 보며 더 강함을 추구한다. 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지친 성진우는 최후의 일격을 맞기 전 일일 퀘스트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패널티 존으로 이동한다. 거우 목숨을 건진 성진우는 잠시 회복의 시간을 가지며, 더욱더 힘에 대한 갈망을 한다.	49화 12~15쪽, 50화 1~7쪽
	패널티 존에서의 생존 간략화 전투 중 과거와의 자신과 대화 추가 - 옛 자신과 비교하며 강함을 더욱 추구해야하는 이유를 더함	
43화	패널티 존에서 지네들을 잡으며 체력을 회복한 성진우, 곧 전직의 던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기사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성진우는 이그리트에게서 얻은 아이템과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한다. 전직의 던전으로 돌아온 성진우는 아까와는 다른 강함으로 적을 제압한다. 그러던 중 알게된 것은 마법사들이 기사들을 계속 소환한다는 것. 기막을 눈치챈 성진우는 은신을 사용해 마법사가 추적하도록 만들어, 역추적을 노린다.	50화 7~14쪽 51화 1~6쪽
	기막을 알아채는 과정 변경 성진우의 대사 간략화 - 액션 장면 강화	
44화	기막을 눈치챈 성진우는 바로 던전의 공략에 들어간다. 몰려오는 기사들을 쓰러뜨리며, 숨어있는 마법사들을 찾아 한명씩 베어나갔다. 공격을 당함에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51화 6~11쪽

	기사들을 물리친다. 마법사들이 커다란 골렘을 만들어 공격한 틈, 기사의 수가 적어져 남은 마법사들이 보이고 마지막 마법사까지 제거하자 전직 퀘스트가 끝난다. 그런 성진우에게 전직이 내려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직업에 내려진다.	
	전직에 대한 성진우의 대사 일부 변경 전투중의 성진우의 독백 삭제 - 액션성 강화	
45화	성진우는 예상하지 못한 '네크로맨서'가 된다. 전투 계열의 직업이 아닌, 죽은 자를 부리는 네크로맨서는 직업 중에서도 히든 클래스였다. 전직 퀘스트에서 등급 포인트가 높았던 덕에 바로 그림자 군주까지 각성하는 성진우, 지금까지 잡아온 몬스터들을 살려본다. 확인을 해본 성진우는 자신이 해치운 이그리트마져 자신의 하수인으로 두게된다.	51화 11쪽 52화 1~22쪽 53화 1~13쪽
	원작 반영	
46화	전직 던전에서 나온 다음날, 성진우는 여동생의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위해 학교로 간다. 학교에 가기 전 몸단장을 하여 시선이 집중되는 성진우,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선생님은 성진우의 여동생이 헌터를 한다면 응원해줄거냐 묻고, 성진우는 절대 헌터는 안시킬거란 태도를 보인다. 이에 선생님은 여동생에 친구 한송이를 헌터가 아닌 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것을 설득해주길 부탁한다. 이에 성진우는 한송이가 지난날 유진호와 C급 던전 돌기 중 왔던 들러리중 한명임을 기억하고 그녀를 찾아간다.	53화 13~15쪽 54화 1~14쪽 55화 1~13쪽 56화 1~11쪽
	전직 이후 독백 및 과정 간소화. 학교 가기 이전, 스탯 확인, 은행 과정 및 독백 간소화	
47화	한송이를 만난 성진우는 그녀를 말로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헌터의 경험을 통해 설득하려 한다. 그 시각 공항에 황동수가 도착한다. 헌터협회마저 그를 말리지 못하고, 황동수는 성진우를 찾아 죽이려 한다. 한송이와 C급 던전 교육장으로 온 성진우. 지난번 백호길드의 연을 통해 한송이에게 헌터가 위험한 직업임을 알려주려 한다. 여러 A급과 B급 헌터가 있어 안심하지만, 던전을 들어가는 순간, 던전의 게이트가 '레드 게이트'로 변하고 만다. 안상민은 이를 즉시 백호 길드의 사장, S급 헌터 백윤희에게 보고한다.	56화 12~14쪽 57화 1~14쪽 58화 1~14쪽 59화 1~2쪽
	유명한, 유진호, 유진성 관련 장면 삭제. 헌터협회 본부 장면 삭제. 안상민 과정 삭제. - 원작의 내용 대부분 삭제 유진호 합류 장면 삭제 한송이 합류 장면 축약 및 변경 안상민 합류 장면 변경 황동수 도착 장면 추가	
48화	황동수는 유진철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59화

	<p>유진철에게 성진우를 확실히 죽일 것을 경고한다. 레드게이트에 들어온 인원들은 설원에 도착한다. 한편 레드 게이트가 열린 곳에 백윤희가 도착했다. 걱정하는 백윤희에게 안상민은 자신이 눈여겨 보는 헌터, 성진우가 들어갔음을 알린다. 그곳에서 아이스 엘프, 헌터를 사냥하는 백귀들의 기습을 받게된다.</p>	2~10쪽
	<p>안상민 합류 장면 변경 황동수 장면 추가</p>	
49화	<p>레드 게이트에 들어온 이들은 우선 파티를 나누기로 한다. A급 김철의 지시하에 파티가 나뉘는데, C급이하 헌터들은 버려진다. 던전의 상태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의 수라고는 하나, 남겨진 C급 이하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의미했다. 하지만 높은 B급 여자 헌터는 성진우가 있는 C급 파티에 붙는다. 그시각 황동수가 백윤희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 둘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백윤희는 주변인들이 왜 성진우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를 못한다.</p>	59화 10~14쪽 60화 1~9쪽
	<p>황동수 등장 순서 변경 레드 게이트 앞 대화 순서 변경 박희진 대사 일부 변경 및 삭제 한송이 대화 순서 변경 - 던전 입장 전 내용 끌고옴</p>	
50화	<p>레드 게이트에 들어와 나뉜 파티, 김철의 앞에 상급 마수 아이스 베어가 등장한다. A급 헌터이기에 서너 마리의 아이스 베어는 쓰러뜨리지만 김철은 앞날을 걱정한다 한편 파티가 갈라진 성진우 쪽, B급 마법사 박희진은 성진우에게 아이스 베어의 거처를 왜 들어왔는지 묻고, 성진우는 아이스 엘프를 피하기 위함이라 말한다. 그리고 나타난 아이스 베어, 성진우는 모두의 걱정과는 반대로 한방에 제압한다. 이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사이 성진우는 일일퀘스트를 위해 자리를 비운다. 황동수와 백윤희는 레드 게이트 앞에서 성진우가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백윤희는 성진우가 정말 살아돌아올 것인지 기다려 보도록한다. 성진우는 이후 발견한 아이스 베어의 동굴에서 자신의 직업인 '네크로맨서'를 사용해 보고자 한다. 황동수와 백윤희는 레드 게이트 앞에서 성진우가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백윤희는 성진우가 정말 살아돌아올 것인지 기다려 보도록한다.</p>	60화 9~15쪽 61화 1~14쪽.
	<p>성진우 파티 대화 간략화 황동수 등장 시점 추가 성진우 아이스베어 동굴 발견 장면 변경. 백윤희 대사 간략화</p>	
느낀점	<p>1. 캐릭터의 성격 차이. 원작에서의 성진우와 웹툰의 성진우는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 본편에서보다 더욱 냉철하고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이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성진우의 모습에 캐릭터성을 더 잘 부여해주는 듯했다. 또한 대사로 할 부분들을 그림으로 대체하면서 캐릭터의 말을 줄일 수</p>	

있고, 힘에 대한 갈망 또한 잘 나타난 것 같다.
특히 성진우의 힘에 대한 갈망을 원작과는 다르게 훨씬 부각했다.

2. 순서 변경.

많은 순서 변경이 있었다. 대사부터 장면까지, 웹소설의 내용들을 앞 뒤로 배치함으로써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나 떡밥을 통한 독자들의 관심도 증가를 노린 듯 했다. 이는 이미 완결된 웹소설을 분석하여, 적절하게 순서를 변경한 듯하다.

- 황동수

대표적인 순서 변경의 예이다. S급 헌터이자 성진우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인물로서 상당히 강한 듯한 암시를 한다.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성진우에게 위기가 시작했고,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여 보여준다. 이것으로 독자들은 한가지 사건이 끝나도 이후에 있을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3. 내용 축약 및 삭제

필요없다고 판단한 내용 및 과정을 축약 및 삭제했다.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 웹툰 성진우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진행되는 이야기에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될 만큼만 내용을 축약 및 삭제하여 내용이 지루하지 않게끔 만들었다.

4. 원작 변경

앞서 말한 황동수 및 성진우의 과거 회상등 원작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도 추가 반영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캐릭터성 강조, 이후의 이야기 예고 등등이 추가되었고, 웹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원작과 조금 변경시켜 진행 한 듯 하다.

5. 종합적인 의견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에 대한 이해라 생각된다. 웹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독자들의 흥미를 최대한 정확하고 많이 잡아내어 웹툰에 녹아내려야 한다. 반대로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을 부분들은 간소화 하거나 삭제를 하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나혼자만 레벨업’의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이 점을 많이 느꼈다. 개인적으로 웹툰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또한 각색을 잘 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웹소설이 재미 없다는 것은 아니나, 웹툰은 웹소설에서 흥미가 가는 부분과 시각적으로 보고 싶었던 부분등을 잘 각색해서 나타냈다. 또한 웹소설에서 흥미없던 부분은 잘라내었고, 순서도 적절하게 배치하여 이후의 이야기들에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성진우라는 캐릭터에서 가장 놀랐다. 원작의 성진우와는 같으면서도 다른 성진우라는 캐릭터가 ‘왜 강함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웹툰이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다. 그리고 힘을 추구하면서 점점 냉철하고 잔인해지는 성진우에게서 ‘혼자서 나아가는 고독한 헌터’라는 이미지를 잘 보여주었던 것 같다.